우주시대의 예언자 아더 클라크

2차세계대전 중 영국 공군에서 레이더시스템 개발에 종사하던 한 젊은 기술장교가 1945년 통신전문지 「와이어레스 월드」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아더 찰즈 클라크(Arthur Charles Clark)라는 이름의 이 장교는 당시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세계를 전기통신망으로 묶는 방법을 자상하게 논술한 것이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수백기의 인공위성들이 지구궤도를 돌면서 정보화시대의 대들보 구실을 하고 있다.

玄 源 福
〈과학저널리스트/본지 편집위원〉

우주비행과 스킨다이버

1917년 12월 16일 영국 사머셋주 마인헤드에서 태어난 클라크는 고등학교를 나온 뒤 영국정부 재무성 검사역으로 근무하다가 2차대전이 일어나면서 1941년 영국 공군에 입대했다. 1945년 위성통신망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자 클라크에게는 국제 마르코니상을 비롯하여 프랭클린연구소와 킹즈 칼리지의 연구비와 장학비 등 많은 행운의 기회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쟁 후 런던의 킹즈 칼리지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하여 1948년 최우등생으로 졸업한 그는 물리학회지 편집보조인의 일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광막한 우주공간을 헤매고 있었다. 클라크는 대학을 나오기 전에 이미 우주공상과학소설(SF)작가로서 주목을 받고 있었다. 재무성에 들어간 한해 뒤인 1937년에 집필하기 시작한 그의 처녀작 「은하제국의 붕괴」는 1946년 완성되자 대단한 호평을 받았던 것이다.

1950년부터 전업작가의 길로 나선 그는 지금까지 주로 우주에 관한 50여편의 작품을 내놓았고 30여개국의 언어로 옮겨져 모두 5천만부 이상이 출판되어 세계 'SF계의 거성'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올해 80세인 클라크는 지난 40년간 스리랑카에 살아왔다. 그가 본국을 마다하고 열대의 나라에 정착하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에서 비롯된다.

1940년대 말 클라크는 우주비행을 할 때의 무중력상태를 재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다 속이라고 생각하고 해저 탐색이나 스킨다이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물론 물 속에서 무중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무중력의 맛을 보려면 물속이 가장 근사한 상태를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배우기 시작한 것이 스킨다이빙이었다.

클라크는 스킨다이버의 천국인 호주 동북부 퀸슬랜드주 동해안의 대산호초(길이 약 200km)인 이른바 대보초(大保礁)로 가던 도중 우연히 스리랑카에 들렀다. 어느날 오후 그는 실론섬 남해안의 아름다운 산호초로 둘러싸인 아늑한 후미(灣)를 찾아 지방의 다이버들과도 만나 보았다. 마침내 아름다운 자연과 순박한 인심에 매료된 클라크는 이곳에 방갈로를 마련하여 평생의 보금자리로 정착하기로 했다. 그는 대보초와 실론의 산호초에서 다이빙과 수중촬영을 즐기는 가운데 한번은 미국의 아폴로 12호 우주비행사들을 초청하여 다이빙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일도 있다. 그는 1979년부터는 스리랑카 모라투와대학 명예총장직도 맡고 있다.

영원한 고전, '우주의 오디세이'

1964년 4월 클라크는 뉴욕 태생의 미국 영화제작가 스탠리 쿠브릭으로부터 한장의 편지를 받았다. 그는 클라크와 함께 훌륭한 공상과학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냉전물인 '닥터 스트레인져'라는 영화를 제작하여 히트를 친 쿠브릭은 가장 사실적인 우주영화 한편을 만들기로 하고 MGM사로부터 당시로서

는 엄청난 액수인 6백만달러의 제작비를 약속받고 2년 내에 완성하기로 했다. 1964년 4월 22일 뉴욕으로 날아간 클라크는 쿠브릭과 만나 우주, 천문학 그리고 외계생명에 관해 내리 여덟시간이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클라크가 먼저 소설을 쓴 뒤 둘이 함께 이것을 영화각본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리하여 세기의 걸작인 '2001년 : 우주의 오디세이'의 역사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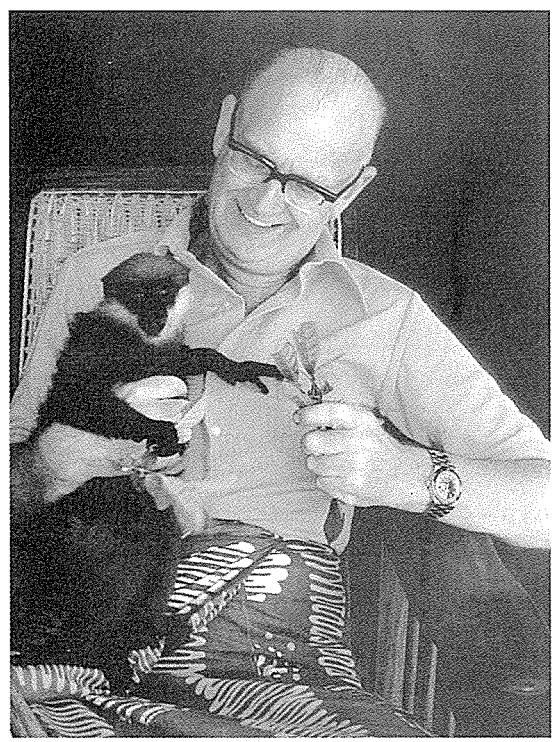
클라크는 물리학·수학·전자공학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가장 과학적이며 사실적인 작품을 저술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바쳤다. 그는 이 작품에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할 9000' 등 과학기술의 미래를 전망하는 한편 광막한 우주에서 인류가 나갈 바람직한 장래를 암시하기도 했다. 1965년 완성된 이 작품은 3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직도 SF의 고전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전설적인 완벽주의자로 알려진 쿠브릭과 클라크는 이 작품에 손질에 손질을 거듭하여 영화각본을 만드는 한편 보잉, 그루먼, 하니웰 그리고 IBM과 같은 대기업들의 협력을 얻어 최첨단기술을 망라한 우주선 '디스커버리'호의 모델제작에 착수했다. 길이 16.2m에 30톤 무게를 가진 이 모델은 12m 지름의 원심분리기까지 갖추고 인공중력을 만들어 낼 수 있어 지금까지 영화용으로 제작한 어떤 우주선모델보다 정교하고 인상적인 작품을 자랑하고 있다. 아무튼 당초 목표일자보다 2년이나 더 걸리고 1천1백만달러의 제작비가 소요된 공상과학영화 '2001년 : 우주의 오디세이'가 마침내 1968년 개봉되었을 때 20세기의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영화'의 하나라는 평을 받았으며 1968년도 미국 영화아카데미의 오스카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작위받는 작가

50여편의 작품을 펴낸 클라크는 그동안 유네스코의 칼링가상(1961)을 비롯하여 프랭클린연구소 스튜어트 발란타인상(1963), 미국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가 주는 오스카상 후보(1968), 미국AAAS-웨스팅하우스상(1969), 네뷸러상(1973, 74, 79), 존 캠벨 과학픽션상(1974), 휴고상(미국 작가·출판업자 휴고 건스백을 기려 1953년부터 해마다 가장 우수한 미국과학픽션 작품에 주는 상이며 1974 및 1980년 수상), 갤럭시상(1979) 등 많은 상을 받았다.

클라크는 80평생을 저작활동과 강연을 통해 과학대중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1998년 초 영국왕실로부터 나이트작위를 받게 되었다. 마침 스리랑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차 스리랑카를 찾는 영국의 찰스황태자를 통해 작위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뜻밖의 일로 작위 수여를 연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수여식을 며칠 앞두고 타블로이드지인 런던의 「선데이 미러」는 클라크가 '어린이에 대한 이상성욕 도착자'라는 폭로기사를 실었기 때문이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클라크는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이런 일로 찰즈왕자에게 누를 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위 수여식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클라크는 그의 걸작인 '2001년 : 우주의 오디세이'에서 사람처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컴퓨터 '할'을 등장시키면서 할의 탄생일을 1997년 1월 12일로 잡았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는 날카로운 눈을 가진 클라크도 인공지능의 개발이 그렇게 어려울 줄은 미처 짐작하지 못했다. ST



▲ 공상과학소설계의 '큰 별'인 클라크가 스리랑카의 방갈로에서 애완원숭이를 안고 있다.